

비대칭적 문장접속: 담화문법 하에서 독일어 분석*

이 해 윤
(한국과학기술원)

Lee, Hae-Yun. (2002). Asymmetric coordination: An analysis of German texts within the framework of discourse grammar. *Language Research* 38(1), 255-274.

In this paper, I have showed the possibility to analyze asymmetric coordinate sentences of German within a formal discourse grammar. In section 2, I have surveyed that asymmetric coordinate sentences behave themselves in the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differently from symmetric coordinate sentences, although they have both the coordinate conjunction *und*. In section 3, I have seen the so-called 'Discourse Structure Grammar' of Lee (2001) on which the analyse of this paper are based. Specially, I have accepted the concept 'discourse relations' of Sanders et al. (1992; 1993) and have postulated the hierarchy of discourse relations according to the three dimensions such as operation, polarity and source.

In section 4, I have analyzed German data on the basis of the Discourse Structure Grammar. First, I have handled the asymmetric texts that contain the other discourse operators besides the conjunction *und*. For this case, I have assumed the 'Discourse-Relation-Principle.' According to this principle, the most specific discourse relation determines the type of the whole text, even if more than two discourse relations expressed by each discourse operator appear within the text. So we could analyze some texts containing two different discourse operators as the asymmetric type by means of that principle and the assumed hierarchy of discourse relations. Second, I have showed the possibility to analyze the texts whose type date back to the meanings of each participating sentence. That is, if we assume that we can extract the discourse relation by the meanings of each sentence, we can calculate the specificity among the discourse relations. Therefore we get the texts which can be regarded at first as symmetric ones because of the conjunction *und*, but which are understood as the asymmetric type.

Key words: asymmetric coordination, discourse structure, coherence relations, discourse markers, HPSG.

* 이 논문은 1999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1999-037-A0012)

1. 들어가는 말

자연언어는 술어논리 등과 같은 형식언어에 기대어 그 의미가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자연언어는 단순한 논리적 연산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이 오래 전부터 관찰되어 왔다. 그 한 예로서 논리 연산자 \wedge 에 상응하는 등위접속사 *and*의 용법을 살펴볼 수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등위접속사 *and*는 논리 연산자 \wedge 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통사범주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결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1) (a) [?]John eats apples and many New Yorkers drive Fords.
 (b) *John is a strict vegetarian and he eats lots of meat.

즉, 등위접속사 *and*는 문장범주들 간의 연결이라는 통사적 측면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론적, 화용론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그간 연구에서 드러났다 (Lakoff, 1971; Lang, 1984; Lakoff, 1986 etc.).

등위 접속사를 사용한 문장 연결체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아 두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문장들간의 교체가 의미변화를 가져오지 않는가, 가져오는가에 따라 접속문은 일반적으로 ‘대칭적 접속문 (symmetric coordination)’과 ‘비대칭적 접속문 (asymmetric coordination)’으로 구분되어 왔다 (Schmerling, 1975; Carston, 1993; Culicover & Jackendoff, 1997 etc.). 다음의 예문들은 그 두 유형을 보여 준다.

- (2) (a) Mary is eating toast and Fred is chasing the aardvark.
 (b) Fred is chasing the aardvark and Mary is eating toast.
- (3) (a) The police came into the room and everyone swallowed their cigarettes.
 (b) Everyone swallowed their cigarettes and the police came into the room. (Lakoff, 1971)

예문 (2)는 두 문장들간의 순서를 바꾸어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대칭적 접속문에 해당한다. 반면에 문장들의 순서가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예문 (3)은 비대칭적 접속문 유형을 나타낸다. 여기서 의미란 연결되는 두 문장들간의 관계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서 텍스트문법 내지는 담화문법에서는 ‘응결성 (coherence)’의 개념 하에 연구되어 왔다. 표층적으로 보면, 두 접속문 유형들에는 공통적으로 등위접속사가 나타남으로써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대칭적 접속문은 비대칭적 관계를 암시해주는 어떤 언어적 단서들이 존재한다.

본 고에서는 형식적인 텍스트문법/담화문법의 관점 하에서 독일어에 나타나는 비대칭적 접속문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비대칭적 관계를 나타내는 ‘담화연산자 (discourse operator)’의 정보가 관련 텍스트/담화의 정보구성에 어떻게 기여하여 비대칭적 접속문을 형성하는지 논의해 본다.¹⁾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분석/기술에 기초하여, 순전히 독자나 청자의 추론에 의존하는 비대칭적 접속문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대칭적 접속문과 비교하여, 비대칭적 접속문이 보여주는 여러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들을 기존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절에서는 일종의 형식적인 담화문법으로서 소위 ‘담화구조문법 (Discourse Structure Grammar)’을 소개하고, 비대칭 접속문의 분석/기술을 위한 장치들을 도입하여 확장하기로 한다. 4절에서는 이 문법체계에 의거하여 담화단위로서의 비대칭적 접속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행한다. 끝으로 논의의 정리와 더불어 남는 문제들이 제시된다.

2. 비대칭 접속문의 특징

비대칭적 접속문은 통사적 그리고 의미론적 측면에서 대칭적 접속문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본 절에서는 독일어 예들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다른 유형의 문장들과는 달리 접속문은 이동에 있어서 제약を 받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Ross (1967)와 Williams (1978)에서 제시하고 있는 ATB (Across-The-Board)와 CSC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제약들에 따르자면,²⁾ 이동과 관련된 규칙의 적용은 개별 접속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다음 독일어 예들은 접속문의 이러한 제약 준수를 잘 보여준다.

- (4) (a) Was¹ hat Bruno gestern t₁ geschlachtet und Sandrine heute t₁ zubereitet?
 ‘What has Bruno slaughtered yesterday and Sandrine prepared today?’
 (b) Nach Angaben der Polizei gibt es kein Opfer, das¹ t₁ seinen Peiniger kennt und t₁ stille schweigt.
 ‘According to the police, there is no victim that knows his tormentor and is quiet silent.’

위의 예에서 의문사 *was* ((4)(a))나 관계대명사 *das* ((4)(b))는 접속문의 두 문장

1) 담화연산자는 ‘discourse markers,’ ‘cue phrases,’ ‘cue words’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운다.

2) ATB 제약은 등위 접속문에서의 규칙적용은 모든 단위 접속문에 관련되어야 함을 말하고, CSC 제약은 등위 접속문에서 어떤 요소도 단독의 접속 단위문에서 이끌어 낼 수 없음을 말한다.

들에 동시적으로 관련됨으로써 ATB/CSC 제약들을 준수하고 있다. 위의 예들은 접속문의 유형들 중 접속문장들 간의 순서교체가 의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대칭적 접속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대칭적 접속문에서는 위의 제약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이 점은 다음 독일어 예들에서도 관찰된다.

- (5) (a) Die Akten¹ nahm er t₁ mit ins Büro und zeigte sie₁ seinen Kollegen.
 'He took the acts together into the office and showed them to his colleagues.'
 (b) *Die Akten¹ nahm er t₁ mit ins Büro und zeigte t₁ seinem Kollegen. (Höhle 1990: fn.8)
- (6) (a) In diesen dunklen Keller¹ hat sie fast jeden ihrer Verehrer t₁ gelockt und ihn dort₁ eingesperrt.
 'In this dark cellar she has attracted almost each of her admirers and locked them in it there.'
 (b) *In diesen dunklen Keller¹ hat sie fast jeden ihrer Verehrer t₁ gelockt und ihn t₁ eingesperrt. (Büring & Hartmann 1998)

위의 예문들은 연결된 순서에 의하여 시간성 (5)이나 인과성 (6)을 표현하므로 그 순서교체가 의미변화를 야기하는 비대칭적 접속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접속문에서는 각각의 (b) 예문들에서처럼 ATB/CSC 제약의 적용은 비문법적인 문장을 유도하는 반면에, 이 제약들을 어기는 각각의 (a) 예문들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의미론 측면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자. 첫째로는 '함의성 (implication)'과 관련된 논의로서, 논리연산자 \wedge 에 의한 명제들의 연결에서 우리는 하위 명제를 추론해낼 수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함의성은 다음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칭적 접속문에서만 적용될 뿐, 비대칭적 접속문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 (7) (a) Peter liebt Spinat und Maria haßt Wirsing.
 'Peter likes spinach and Mary hates savoy cabbage.'
 (b) Maria haßt Wirsing.
- (8) (a) Es gibt ein Fest mit unseren Nachbarn und jeder ist betrunken.
 'There is a party with our neighbors and everybody is drunk.'
 (b) Jeder ist betrunken.

3) 논리연산자와 동위접속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는 van Dijk (1977) 참조.

대칭적 접속문인 (7)(a) 예문이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그 한 구성요소인 (7)(b) 예문의 참을 추론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비대칭적 접속문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즉, 예문 (8)(a)가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파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취했다’는 명제의 참을 함의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취했다’라는 명제를 표현하는 (8)(b) 예문의 진리치는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의미론적 차이점과 관련하여 대명사 해석에 관한 Buring and Hartmann (1998)의 논의를 볼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양화구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명사가 등위 접속문내에 나타날 경우, 접속문의 유형에 따라 대명사의 해석에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9) (a) Im Zirkus Krone steht hinter jedem Löwen¹ eine Dompteuse. Sie krault ihm₁ den Rcken.

‘In the circus Krone, a trainer-girl stands behind each lion. She strokes his back.’

(b) Im Zirkus Krone steht hinter jedem Löwen¹ eine Dompteuse und krault ihm₁ den Rcken.

‘In the circus Krone, a trainer-girl stands behind each lion and strokes his back.’

일반적으로 양화표현을 선행어로 갖는 대명사는 E-Type 대명사로 해석된다. 두 문장의 단순한 연결인 (9)(a)를 대칭적 접속문으로 간주할 경우, 이 구문에서 대명사 *ihm*은 임의의 사자가 아니라 그 뒤에 한 명의 조련사가 서 있는, 크로네 서커스단 소속의 모든 사자들을 의미하는 총칭적 E-Type 대명사로 해석된다. 반면에 보다 긴밀한 연결관계를 보여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볼 수 있는 (9)(b)에서 대명사 *ihm*은 선행 양화구 *jedem Löwen*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결속변항 (bound variable)’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대응어로 작용하는 대명사는 접속문의 유형에 따라 E-Type 대명사 혹은 결속변항으로 달리 해석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대칭적 접속문과 비대칭적 접속문이 여러 언어적 층위에서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후자의 접속유형이 지니는 언어적 정보는 전자의 언어적 정보와는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두 유형의 접속문이 갖는 언어적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담화차원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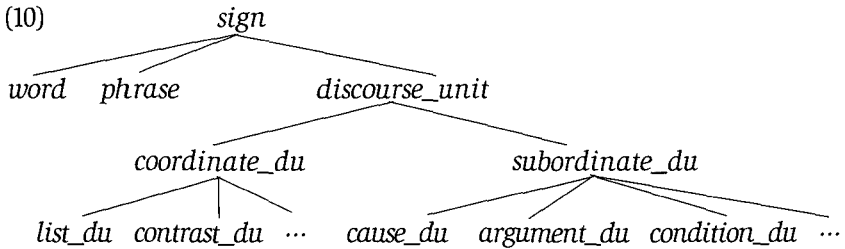
3. 담화문법

이해윤(2001)에서 제시된 담화구조문법은 문장분석에 이용되어온 ‘핵심어주도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을 확장, 발전시킨 이론으

로서 담화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변화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⁴⁾ 본 절에서는 담화구조문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담화구조의 분석에 중요한 요소인 문장들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형식화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본다.

3.1. 담화구조문법

담화구조문법은 통사적 정보 외에도 다양한 담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iscourse_unit* 유형을 그 기본단위로서 가정하고 있다. 이 유형은 담화규칙들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보다 큰 담화단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은 표현하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따라 다시금 여러 하위 유형들로 구분된다. 이해윤 (2001)에서 가정하고 있는 유형들에 대한 위계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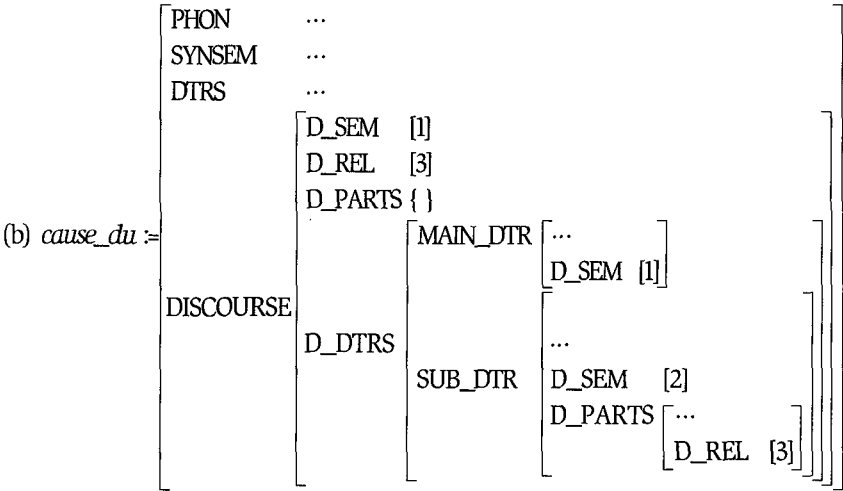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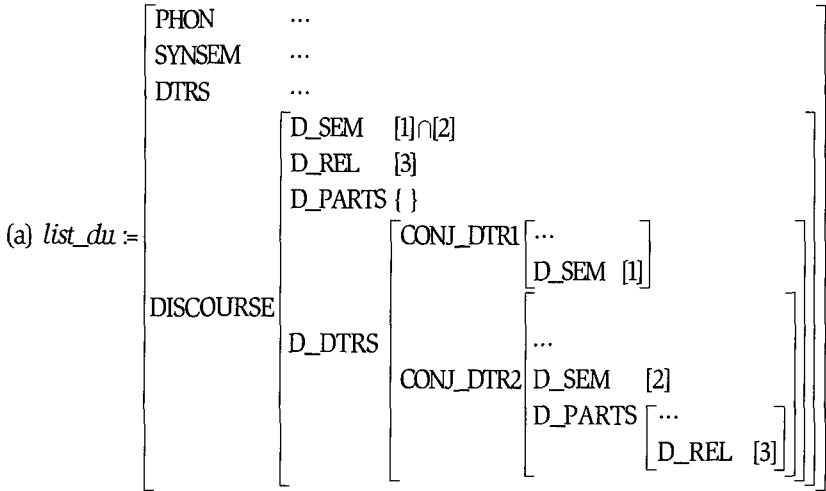


위의 위계구조에 따르자면, 전통적으로 불리어온 대칭적 접속문과 비대칭적 접속문은 각기 *coordinate_du* 유형과 *subordinate_du* 유형에 해당되고, 각 유형은 표현된 관계에 따라 다시금 하위분류된다. 이러한 하위유형들은 표현하고 있는 정보들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그 구체적인 정보는 위계구조와, 이에 기반한 정보들간의 디폴트 상속에 의하여 구성된다.⁵⁾ 대칭적 접속문과 비대칭적 접속문이 각기 어떠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자의 *list_du* 유형과 후자의 *cause_du* 유형이 표현하고 있는 자질구조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4) 핵심어주도구구조문법에 관해서는 Pollard and Sag (1994), Sag and Wasow (1999) 참조.

5) 디폴트 상속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Lee (1999) 참조.

(11)



담화단위는 문장차원의 정보이외에도 담화차원의 정보를 부가하여 DISCOURSE의 값 내에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화단위가 지니는 의미적 내용은 D_SEM의 값에, 하위 담화단위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D_REL의 값에, 담화연산자들은 D_PARTS의 값에, 그리고 하위 담화단위들이 보여주는 구조의 모습은 D_DTRS의 값에 표현되어 있다. 상이한 두 유형의 정보를 비교해 보면, D_SEM과 D_DTRS 값에서 그 차이를 드러낸다. 부가하여 D_DTRS의 값을 보면, *list_du* 유형의 경우 동일한 지위를 암시하는 CONJ_DTR1과 CONJ_DTR2로, 그리고

cause_du 유형에서는 주문장과 부문장을 암시하는 MAIN_DTR과 SUB_DTR로 구성된 자질구조가 나타난다. 또한 부가어 D_SEM의 값을 보면, *list_du* 유형의 경우 두 하위 담화단위들의 내용에 기반한 어떤 연산작용에 의하여, 그리고 *cause_du* 유형의 경우 전적으로 주문장의 의미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담화단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표현되는 담화관계 (D_REL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위의 자질구조에서 보면, D_REL의 값은 하위 담화단위들 내에 나타나는 담화연산자 (D_PARTS의 값)의 D_REL 값과 공지시 관계를 맺음으로써, 등장하는 담화연산자에 따라 상위 담화단위가 지니는 관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위 담화단위의 D_PARTS 값은 공집합으로 나타남으로써, 하위 담화단위에 나타난 담화연산자는 더 이상 상위층위에서 작용하지 않는다. 즉, 두 유형의 자질구조에서 보듯이, 해당 담화의 유형은 하위 담화단위들 간에 맺고 있는 관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은 이러한 관계들을 담화구조문법 내에서 어떻게 형식화할 지 논의하기로 한다.

3.2. 담화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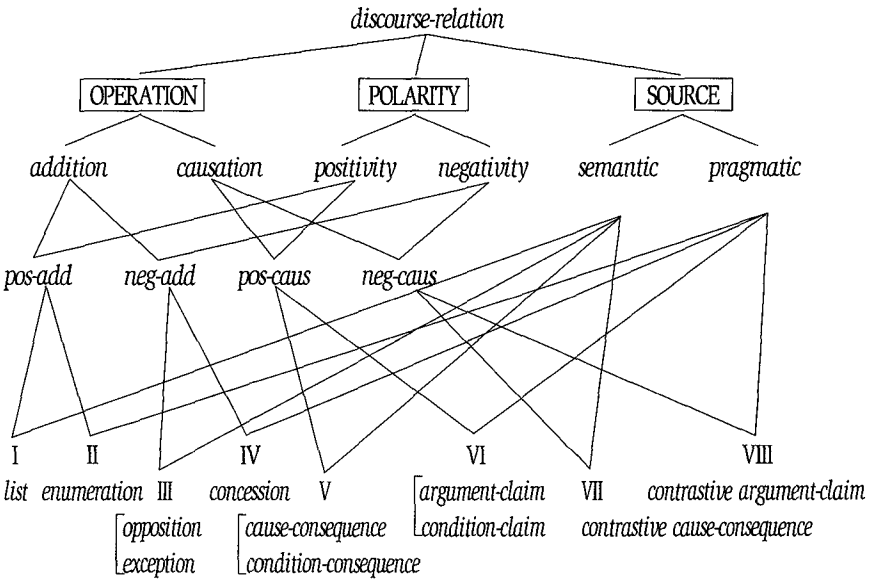
‘담화관계 (discourse relation)’의 속성과 목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매우 다양하다 (Mann and Thompson, 1987; Hobbs, 1990; Sanders et al. 1992; Polanyi, 1995 etc.). 인지적 관점 하에서 담화를 바라보고 있는 Sanders et al. (1992, 1993)에 따르면, 임의의 담화를 이해 혹은 생성한다는 것은 담화단위들 간에 맺고 있는 관계를 인식하는 일이다. 즉, 담화의 해석/생성과정에서 주 작업은 주어진 담화에 나타나는 담화관계를 추론해내어 응결적인 표현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담화의 표현체는 하위 담화단위들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담화관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고, 담화관계란 저자/화자와 독자/청자간의 의사소통에 이용되는 인지적 단위로 간주될 수 있다. Sanders 외. (1992)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담화관계들을 다음에 제시되는 원초적인 개념들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 **Basic operation:** 모든 관계들은 ‘인과 causal’ 혹은 ‘첨가 additive’ 요소들 중 하나를 갖는다. 인과관계는 담화단위들간에 적절한 인과적 연결이 존재하는 관계이고, 그 외는 첨가관계이다.
- **Source of coherence:** 모든 관계는 ‘의미적 semantic’ 혹은 ‘화용적 pragmatic’ 토대를 근거로 해서 연결된다. 담화단위들이 그 명제내용에 근거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의미적이고, 발화수반행위에 근거하면 화용적이다.
- **Polarity:** 두 담화단위 자체의 내용이 연결되면 ‘긍정적 positive’이고, 한 담화단위의 내용이 다른 담화단위 내용의 부정과 연결되면 ‘부정적 negative’이다.
- **Order of segments:** 인과관계에만 적용되며, 선행어가 왼쪽에 있으면 ‘기본 어순 basic order’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비기본 어순 non-basic order’이다.

이러한 네 가지 원초적 개념들을 결합하여, Sanders et al. (1992, 1993)에서는 12 부류의 담화관계들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LIST’ 담화관계는 [additive, semantic, positive]의 개념들 결합으로, 그리고 ‘CONSEQUENCE-CAUSE’ 담화관계는 [causal, semantic, non-basic, positive]의 개념들 결합으로 정의된다.

담화관계를 인지적 기본단위로 간주하고 있는 Sanders 외. (1992)의 견해는 담화구조문법 체계 내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 담화구조문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본단위들은 인간의 인지적 단위에 해당하는 유형 *sort*로서, 이 유형은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고있는 ‘구성물 construction’로 간주된다 (Sag & Wasaw, 1999). 그러므로 그 한 유형으로서 담화관계를 표현하는 *discourse_unit* 유형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은 operation, polarity, source 등의 세 차원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담화관계들을 표현하는 하위 유형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6) 이를 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2)



개별 유형의 정보는 ‘매개화된 사태 (parametrized states of affair, *psoa*)’ 형태의 자질구조로 표현되며, 관련된 상위 유형들로부터 그 정보를 디폴트 상속받아 구성된다. 예를 들어, 위의 위계구조에서 보면 담화관계 유형 *cause-consequence*

6) Sanders 외. (1992, 1993)에서 가정된 ‘order of segments’ 차원은 유형들의 정의에서 사용되는 자질구조의 부가어 값들이 상이하게 등장하므로 고려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세 차원의 기본 개념들이 이용된다.

는 상위 유형인 *pos-caus*와 *semantic*로부터, 그리고 유형 *pos-caus*는 다시금 상위 유형 *causation* 와 *positivity*로부터 그 정보를 디폴트 상속받고 있다.

위의 위계구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담화관계 유형들로서 8개 부류의 유형들이 가정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 중 *causation* 유형의 하위 유형들은 관련된 담화단위들의 출현순서에 따라 상이한 정보구조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V 부류에 속하는 *cause-consequence* 유형의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자질구조로 표현되는 하위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⁷⁾

- (13) (a) $\left[\begin{array}{l} \text{REL } \textit{cause} \\ \text{CAUSER [1]} \\ \text{CAUSEE [2]} \end{array} \right]$ (b) $\left[\begin{array}{l} \text{REL } \textit{cause} \\ \text{CAUSER [2]} \\ \text{CAUSEE [1]} \end{array} \right]$

그러므로 담화단위들의 출현순서에 민감한 비대칭적 접속문들은 *causation* 유형의 하위 유형들로 표현되는 담화관계들 중 하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⁸⁾ 즉, 앞서 (10)에서 가정한 *subordinate_du* 유형의 하위 유형들은 그 자질구조 내의 부가어 D_REL 값으로서 *causation* 유형의 한 하위유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cause_du* 담화유형 (11)(b)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보충될 수 있다.

- (14) $\left[\begin{array}{l} \dots \\ \text{DISCOURSE } \left[\dots \right. \\ \left. \text{D_REL } \textit{cause-consequence} \right] \end{array} \right]$
cause_du

7) 지표 [1], [2]는 각기 접속문을 형성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의미내용에 해당한다.

8) 다음은 Sanders 외. (1993)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 (12)에서 가정한 비대칭적 담화관계들에 대한 전형적인 예문들이다.

(a) *cause-consequence*:

Because they have to fly long distan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cranes are in poor condition on arrival.

(b) *condition-cause*:

If they make it to Spain in two weeks, the cranes are in poor condition on arrival.

(c) *argument-claim*:

The cranes can be caught easily in Northern Spain, so they are in poor condition on arrival.

(d) *condition-claim*:

Provided that it may be assumed that the research data can be trusted, the cranes are in poor condition on arrival.

(e) *contrastive cause-consequence*:

Although the cranes are good flyers, they are in poor condition on arrival.

(f) *contrastive argument-claim*:

Although not all research data point in the same direction, the cranes are in poor condition on arrival.

종합하면, 본 절에서는 비대칭적 접속문의 분석을 위한 기본 체계로서 담화구조 문법을 살펴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대칭적 접속문은 (10)에서 가정한 다양한 담화유형들 중 *subordinate_{du}* 유형에 속하며, 이 유형이 담고있는 다양한 정보들은 담화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지적 단위로서 간주되는 담화관계들은 표현하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따라 위계구조를 이루는데, *subordinate_{du}* 유형과 관련된 담화관계들은 *causation* 유형의 하위 유형들에 해당됨을 보았다. 이러한 이론체계를 가지고서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대칭적 접속문을 분석하도록 한다.

4. 비대칭적 접속문

4.1. 담화연산자에 의한 비대칭적 접속문

담화/텍스트 내에 암시되어 있는 담화관계를 파악해내는 일은 주어진 언어적 단서들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문제해결과정 혹은 추론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단서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경우, 독자/청자 입장에서 저자/화자가 의도한 담화관계를 보다 쉽게 추론해 낼 수 있다.⁹⁾ 그러한 명시적인 추론단서로서 우리는 먼저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문장부사 등으로 나타나는 담화연산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담화연산자에 의한 담화관계의 추론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담화관계는 담화연산자 이외에 다른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문맥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들간의 대응관계를 일대일 관계로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담화연산자가 여러 담화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 역으로 하나의 담화관계는 여러 담화연산자에 의해 표현 가능하다.

Knot & Sanders (1997)에서는 영어와 네덜란드어를 중심으로 대치가능성 등의 테스트에 의하여 특정 담화관계를 표현하는 담화연산자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특히 Sanders 외. (1992, 1993)에서 가정하는 원초적 개념들을 고려하여 담화연산자들 간의 위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동일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담화관계들 간의 위계구조 (12)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Knot와 Sanders (1997)에서 밝힌 영어의 담화 연산자들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담화관계들에 대응시켜 볼 수 있다.

9)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Knot and Dale (1994, p. 1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If people actually use a particular set of relations when constructing and interpreting text, it is likely that the language they speak contains the resources to signal those particular relations explicitly. If people plan texts by building a structure of relations, and understand texts by working out this structure, then being able to mark relations explicitly in text will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process, by making it easier for a writer to indicate to a reader which relation is intended."

<표 1>

담 화 관 계	담 화 연 산 자	
	영 어	독 일 어
① addition	<i>and</i>	<i>und (, oder, entweder-oder)</i>
② negativity	<i>but</i>	<i>aber</i>
③ pos-add	<i>also</i>	<i>auch</i>
④ neg-add	<i>on the other hand</i>	<i>hingegen</i>
⑤ pos-caus	<i>because</i>	<i>denn, weil</i>
⑥ neg-caus	<i>nevertheless</i>	<i>trotzdem, dennoch, doch, ...</i>
⑦ list	<i>too, also</i>	<i>auch</i>
⑧ enumeration	<i>moreover</i>	<i>außerdem, ...</i>
⑨ opposition/exception	<i>by contrast</i>	<i>dagegen, ...</i>
⑩ concession	<i>but</i>	<i>aber, doch</i>
⑪ cause-consequence/ condition-consequence	<i>because, therefore, so, ... if</i>	<i>weil, deshalb, so, somit, ... wenn, insofern, ...</i>
⑫ argument-claim/ condition-claim	<i>so, for, provided that, if,</i>	<i>so, wenn,</i>
⑬ contrastive cause-consequence	<i>although, despite this</i>	<i>obwohl, jedoch, doch,</i>
⑭ contrastive argument-claim	<i>although</i>	<i>obwohl, jedoch, doch,...</i>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에서 가정할 수 있는 담화관계-담화연산자 간의 대응관계에 상응하게 우리는 독일어의 경우에도 그 대응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코퍼스를 분석해 보면, 하나의 담화연산자에 의해 하나의 담화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담화/텍스트는 오히려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담화 연산자들이 함께 등장하는 담화/텍스트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¹¹⁾

10) 표 1에서 가정하고 있는 대응관계는 DUDEN (1995)에서 제시된 각 담화연산자에 대한 의미적 설명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코퍼스 등의 자료조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대응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11) 다음에 제시되는 독일어 예들은 IDS (<http://corpora.ids-mannheim.de/~cosmas>)에서 제공되는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임을 밝혀둔다.

- (15) (a) Dieser Tage konnte er die Intensiv-Station verlassen, *und* er hat unter anderem *auch* bereits Besuch guter Freunde aus der Partei gehabt.

‘최근에 그는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또한 정당의 좋은 친구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 (b) Er ist zwar schreckhaft und zurückhaltend, *aber* er kann *trotzdem* mit allen Wassern gewaschen sein.

‘그는 겁 많고 수줍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이다.’

- (c) Die Damen könnten aus dieser Situation heraus ihre Chance nutzen *und* wären *so auch* ein Gewinn für ein Mixed-Turnier.

‘그 부인들은 이 상황으로부터 기회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또한 혼합경기에 있어서 이점일 수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면, 두 개의 담화 연산자들이 ((15)(a)(b)), 혹은 세 개의 담화 연산자들이 ((15)(c)) 나타나고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나타나는 담화관계를 포착하기 위하여 표 1에서 제시한 담화관계-담화연산자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담화/텍스트에 여러 담화관계들을 설정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표 층적으로는 대칭적 접속문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파악되는 담화/텍스트를 분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다음에는 여러 담화연산자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분류되는 담화/텍스트를 표 1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다음의 텍스트들을 살펴보자.

- (16) (a) Es hat erfreulich wenig Hebel, Zifferblätter und Instrumente, *und deswegen* kann man nicht soviel falsch machen.

‘다행스럽게도 몇몇 지렛대, 글자판 그리고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 (b) Bei dem Stuttgarter Gewalttäter war diese Frage jedoch nicht relevant, *und* er ist *insofern* auch kein typischer oder beispielhafter Fall.

‘하지만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그 범죄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런 한에서 그는 또한 전형적인 혹은 예시적인 경우는 아니다.’

- (c) in Ägypten stellte ihm die russische Geheimpolizei nach, *und so* kam er als Tierpfleger mit Maultieren nach Deutsch-Ostafrika.

‘이집트에서 러시아 비밀경찰이 그를 뒤쫓았고, 그래서 그는 동물조련사로서 노새를 타고 동아프리카로 갔다.’

(d) Ich schlief großartig, tief und mit Traumen, [...], und doch spürte ich durch Schlaf und Traum hindurch schon die Angst vor dem Erwachen.

‘나는 꿈을 꾸면서 깊이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잤다, ... 그리고 하지만 꿈을 꾸면서 잠자는 동안 내내 이미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면, 담화연산자 *und* 이외에도 다른 담화연산자들 *deswegen*, *insofern*, *so*, *doch* 등의 출현으로 담화관계 *addition* 이외에도 각기 *cause-consequence* ((16)(a)), *condition-consequence* ((16)(b)), *argument-claim* ((16)(c)), *contrastive cause-consequence* ((16)(d)) 등의 담화관계들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 두 개의 담화관계들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의 예문들에 내용상 후자의 담화관계를 배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예문들을 모두 하위 문장들의 교체가 의미변화를 가져오는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분류한다. 이는 예문들에서 나타나는 두 담화연산자에 의한 담화관계들 중에서 비대칭적 담화관계를 지시하는 담화연산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 문장의 담화관계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앞 절에서 제시한 담화구조문법 내에서 이러한 관찰을 어떻게 형식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앞서 3.1. 절에서 하나의 담화연산자가 등장할 경우, 그 담화연산자가 갖는 담화관계의 값에 의해서 상위 담화단위의 정보구조, 즉 유형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15), (16)에서처럼 둘 이상의 담화연산자가 출현할 경우, 이러한 가정은 수정을 필요로 한다. 먼저 우리는 담화관계를 표현하는 *D_REL* 값을 담화관계 유형들의 순서쌍 형태로 가정함으로써 여러 담화관계들의 공존을 표현할 수 있다.¹²⁾ 다음으로 상위 담화단위의 유형을 결정할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표 1에서 제시된 담화연산자-담화관계의 대응과, 담화관계들의 위계구조 (12)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출현하는 담화연산자들이 표현하는 각각의 담화관계들이 상호 순서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장 낮은 순위의, 즉 가장 상세한 담화관계가 전체의 담화관계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5)(a)에서 *und*와 *auch* 담화연산자에 의해 *addition* 유형과 *list* 유형의 담화관계들이 나타나지만, 두 유형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보다는 이들 중 보다 특수한 *list* 유형이 전체 담화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외는 달리 그 담화관계들간에 순서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면, 즉 *causation* 유형의 하위 유형들과 *addition* 유형의 하위 유형들이 공존할 경우,

12) 이러한 가정은 한 논평자가 지적한 다음 두 문장간의 차이를 *D_REL* 값의 차이로, 즉 <*addition*, *cause-consequence*>와 <*cause-consequence*>의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i) Es hat erfreulich wenig Hebel, Zifferblätter und Instrumente, und deswegen kann man nicht soviel falsch machen. (=16)(a)

(ii) Es hat erfreulich wenig Hebel, Zifferblätter und Instrumente. Deswegen kann man nicht soviel falsch machen.

전자에 의해 전체 담화단위의 담화관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파악되는 (16)의 예문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연산자 \otimes 를 정의함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17) \text{rel}_i \otimes \text{rel}_j = \langle \text{rel}_i, \text{rel}_j \rangle, \\ \text{where (i) } \text{rel}_i \geq \text{rel}_j \quad \text{or} \\ \text{(ii) } \text{addition} \geq \text{rel}_i \text{ and } \text{causation} \geq \text{rel}_j$$

이러한 연산자를 사용하여 이제 우리는 여러 담화연산자들이 나타나는 담화의 담화관계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다음의 제약/원리를 가정하기로 한다.

(18) 담화관계원리 (Discourse-Relation-Principle):

$$\left[\begin{array}{ll} \text{D_PARTS} & \{ \} \\ \text{D_REL} & [1] \otimes \dots \otimes [n] \\ \text{D_DRTS} | \dots | \text{D_PARTS} & \left\{ \left[\overset{\dots}{\text{D_REL}} [1] \right], \dots, \left[\overset{\dots}{\text{D_REL}} [n] \right] \right\} \end{array} \right]$$

원리 (18)에 따르면, 임의의 담화단위가 갖는 담화관계는 그 하위 담화단위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담화연산자들 간의 연산자 \otimes 의 적용결과로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담화관계원리 (18)이 비대칭적 접속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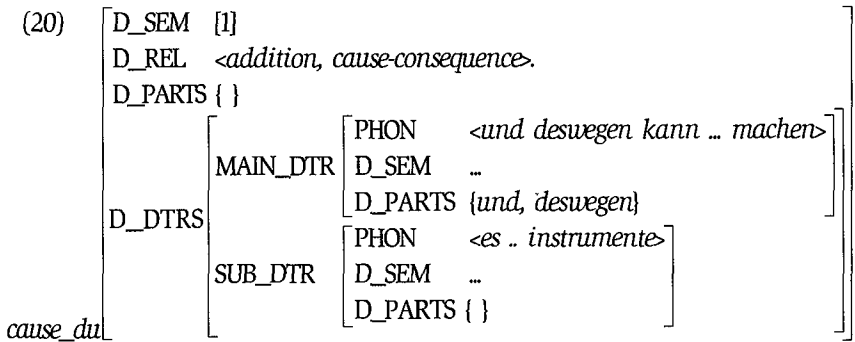
(16) (a) Es hat erfreulich wenig Hebel, Zifferblätter und Instrumente, *und deswegen* kann man nicht soviel falsch machen.

먼저 담화단위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담화관계를 추론해 내어야 한다. 위 예문에서는 담화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두 담화연산자 *und*, *deswegen*을 포함하고 있다. 두 담화 연산자에 대하여 표 1에서 제시된 담화연산자-담화관계의 대응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질구조로 그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19) \text{(a)} \quad \langle \text{und}, \left[\begin{array}{l} \text{conj} \\ \text{D_REL addition} \end{array} \right] \rangle > \\ \text{(b)} \quad \langle \text{deswegen}, \left[\begin{array}{l} \text{adv} \\ \text{D_REL cause-consequence} \end{array} \right] \rangle >$$

두 담화 연산자들의 담화관계들 *addition*과 *cause-consequence* 중 어떤 것이 전체 담화단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관계들에 연산자

⊗를 적용해야 한다. 정의 (17)과 위계구조 (12)에 의하면, 두 담화관계는 각기 다른 차원에 속하여 상호간 순서관계를 지니지 않으므로 연산자 ⊗의 작용값으로서 < addition, cause-consequence >를 갖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 (16)(a)는 두 담화관계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지만, cause-consequence 담화관계에 의해 cause_du 유형으로 결정되어 비대칭적 접속문을 나타낸다. 이를 자질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2. 추론에 의한 비대칭적 접속문

본 소절에서는 앞선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전형적인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알려진 다음 문장들에 대한 기술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a) Die Zahl 5 ist eine Primzahl, und sie ist nur durch 1 und durch sich selbst teilbar.

‘숫자 5는 소수이므로 단지 1과 자신으로만 나뉘어질 수 있다.’

(b) Gib mir dein Bild, und ich gebe dir meins.

‘너의 사진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나의 것을 주겠다.’

(c) Ich frage dich freundschaftlich, und du antwortest gereizt.

‘나는 너에게 친절히 물어보지만, 너는 화내며 대답한다.’ (Posner, 1979)

위 예문들은 (16)의 예문들과는 달리 담화관계를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어휘적 표현으로서 담화연산자 und 하나만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의 예들에서 und에 의한 담화관계 addition 이외에도 cause-consequence (a), condition-consequence (b), contrastive cause-consequence (c) 등의 담화관계들을 설정할 수 있고, 바로 후자에 의하여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후자의 담화관계들을 설정하는 것은 각 하위 담화단위들의 의미적 내용 혹은

우리가 지닌 세계지식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담화관계원리 (18)은 담화연산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담화관계를 포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예들을 분석할 경우 우리는 그 원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담화단위의 의미내용이나 세계지식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담화관계를 추론해 내는 작업은 술어 또는 세계지식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필요로 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본 고에서는 다만 이를 수용할 장치로서 앞서 제시한 담화관계원리 (1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2) 담화관계원리 (the last version):

$$\left[\begin{array}{l} \text{D_PARTS } \{ \} \\ \text{D_REL } \quad \left[([1] \otimes \dots \otimes [n]) \otimes \text{infer}([i], [j]) \right] \\ \dots \quad [i] \left[\dots \right] \\ \text{D_DTRS } \quad \left[\dots [j] \left[\text{D_PARTS } \left\{ \left[\dots \text{D_REL } [1] \right], \dots, \left[\dots \text{D_REL } [n]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 \dots \quad \left[\dots \right] \end{array} \right]$$

앞서 제시한 담화관계원리 (18)와 비교하여 볼 때, 위의 (22)에서는 D_REL의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담화연산자들 뿐만 아니라, 하위 담화단위들을 기반으로 하여 추론해낼 수 있는 담화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수 *infer*를 도입하고 있다.¹³⁾ 따라서 전체 담화단위의 유형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담화연산자들의 담화관계들간 연산자 \otimes 의 적용값과, 그리고 하위 담화단위들간의 어떤 추론작업에 의한 값에 대한 연산자 \otimes 의 적용 결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 제시된 담화관계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 예문 (21)(c)를 분석함으로써 설명하도록 한다. 예문 (21)(c)에서는 담화연산자 *und*의 출현으로 먼저 *addition*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문장들간의 내용에 기반하여 어떤 담화관계를 추론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전체 담화단위의 D_REL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23)

$$\left[\text{D_REL } \text{addition} \otimes \text{infer} \left(\left[\text{PHON } \langle \text{und du antwortest gereizt} \rangle \right], \left[\text{PHON } \langle \text{ich frage dich freundlich} \rangle \right] \right) \right]$$

13) 함수 *infer*의 작용은 Asher (1993)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추론법칙에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ngle \alpha, \beta \rangle \& \Psi 1(\alpha) \& \Psi 2(\beta) > \varphi(\alpha, \beta)$

즉, α 가 이미 존재하는 담화이고 β 가 추가된 담화, $\Psi 1(\alpha)$ 는 α 의 주요 사건, $\Psi 2(\beta)$ 는 β 의 주요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로부터 두 담화단위간에 맺고 있는 담화관계 φ 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우리는 함수 $infer([i], [j])$ 의 값으로서 두 담화단위의 의미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contrastive cause-consequence* 관계를 가정한다면, 두 담화관계들 *addition*과 *contrastive cause-consequence*은 각기 다른 차원에 속하는 유형들이므로 우리는 D_REL의 값으로서 순서쌍 $\langle addition, contrastive cause-consequence \rangle$ 를 얻게 된다. 따라서 예문 (21)(c)는 담화관계 *contrastive cause-consequence* 유형에 의하여 어떤 *subordinate_du* 유형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비록 대칭적 담화관계를 지시하는 담화연산자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문맥상에서 비대칭적 담화관계를 보여주어 비대칭적 접속문의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질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24) \left[\begin{array}{l} \text{D_SEM} \quad [1] \\ \text{D_REL} \quad \langle addition, contrastive cause-consequence \rangle \\ \text{D_PARTS} \quad \{ \} \\ \left[\begin{array}{l} \text{D_DTRS} \quad \left[\begin{array}{l} \text{MAIN_DTR} \quad \left[\begin{array}{l} \text{PHON} \quad \langle und \text{ du antwortest gereizt} \rangle \\ \text{D_SEM} \quad [1] \\ \text{D_PARTS} \quad \{ und \} \end{array} \right] \\ \text{SUB_DTR} \quad \left[\begin{array}{l} \text{PHON} \quad \langle ich frage dich freundlich \rangle \\ \text{D_SEM} \quad [2] \\ \text{D_PARTS} \quad \{ \}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5.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독일어의 비대칭적 접속문을 형식문법의 체계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대칭적 접속문은 대칭적 접속문처럼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지만,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후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대칭적 접속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3절에서는 이 해윤 (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화구조문법을 살펴보았다. 특히 Sanders et al. (1992; 1993)에서 제시된 담화관계들을 담화구조문법 내에 재구성하여 수용함으로써, 비대칭적 접속문이 보여주는 담화관계들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4절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비대칭적 접속문들을 분석, 기술하여 보았다. 먼저 4.1. 절에서는 등위접속사 이외에도 다른 담화연산자가 등장함으로써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파악되는 텍스트들을 다루었다. 담화연산자와 담화관계 간의 대응을 설정하고, 담화관계들간의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담화관계들이 나타나는 텍스트의 경우, 보다 상세한 혹은 인과적 관계를 의미하는 담화관계가 전체 텍스트의 담화관계를 결정하도록 하는 원리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원리로서 담화연산자에 의존한 비대칭적 접속문을 분석, 기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명시적인

어휘에 의존한 분석 이외에도 4.2. 절에서는 담화단위들 내용에 근거한 추론에 의하여 비대칭적 접속문으로 분류되는 텍스트들을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담화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용 가능한 담화연산자의 기능에 기대어 형식적인 문법체계 내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러나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담화구조에 대한 보다 완전한 연구를 위해서는 담화단위의 내용에 근거한, 즉 술어들간의 상호 결합에 의한 담화관계, 혹은 독자/청자의 일반적 지식이나 추론능력에 기반한 담화관계들을 탐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이해윤. (2001). 담화의 구조: 새로운 담화문법의 설계. *독어학* 4, 109-128.
- Asher, N. (1993). *Reference to Abstract Objects in Discourse*. Dordrecht: Kluwer Academic.
- Büring, D. and K. Hartmann. (1998). Asymmetrische Koordination, *Linguistische Berichte* 174, 172-201.
- Carston, R. (1993). Conjunction, explanation and relevance. *Lingua* 90, 27-48.
- Culicover, P. and R. Jackendoff. (1997). Semantic subordination despite syntactic coordination. *Linguistic Inquiry* 28(2), 195-217.
- Duden. (1995).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Hg. von G. Drosdowski u.a. Mannheim: Dudenverl.
- Hobbs, J. R. (1990). *Literature and Cognition*. CSLI.
- Höhle, T. (1990). Assumptions about asymmetric coordination in German. In J. Mascar & M. Nespors, eds., *Grammar in progress*. Dordrecht: Foris, 221-236.
- Knot, A. and R. Dale. (1993). Using Linguistic Phenomena to Motivate a Set of Rhetorical Relations. ms.
- Knot, A. and T. Sanders. (1997). The classification of coherence relations and their linguistic markers: An exploration of two languages. Ms.
- Lakoff, G. (1986). Frame semantic control of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Pragmatics and Grammatical Theory* (pp. 152-167). Chicago: CLS.
- Lakoff, R. (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Ch. J. Fillmore & D. T. Langendoen,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pp. 114-149). New York: Holt.
- Lang, E. (1984). *The Semantics of Coordin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Lee, H.-Y. (1999). *Ellipsen in Satzkoordinationen*. Frankfurt a.M. et al.:

- Peter Lang.
- Mann, W. and S. Thompson. (1987). *Rhetorical Structure Theory: A Theory of Text Organization*. California: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 Polanyi, L. (1995). The linguistic structure of discourse. ms.
- Pollard, C. and I.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Stanford: CSLI/Uni. of Chicago Press.
- Posner, R. (1979). Bedeutung und Gebrauch der Satzverknüpfen in den natürlichen Sprachen. In G. Grewendorf, ed., *Sprechakttheorie und Semantik*. Frankfurt a. M.: Suhrkamp, 345-385.
-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issertation. MIT.
- Sag, I. A. and T. Wasow. (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CSLI
- Sanders, T., W. Spooren and L. Noordman. (1992). Toward a taxonomy of coherence relations. *Discourse Processes* 15, 1-35.
- Sanders, T., W. Spooren and L. Noordman. (1993). Coherence relations in a cognitive theory of discourse representation. *Cognitive Linguistics* 4, 93-133.
- Schmerling, S. F. (1975). Asymmetric conjunction and rules of conversation.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Bd.3: Speech acts*. New York.
- van Dijk, T. A. (1977). Connectives in text grammar and text logic. In T. A. van Dijk and J. S. Petöfi, eds., *Grammar and Descriptions* (pp. 11-63). Berlin/New York.
- Williams, E. (1978). Across-the-board rule application. *Linguistic Inquiry* 9, 31-43.

이 해 윤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전공

전자우편 : haeyun@world.kaist.ac.kr

접수일자 : 2001. 7. 16

수정본 접수 : 2002. 1. 18

게재결정 : 2002. 2. 22